

영어어문교육 9권 1호 2003년 여름

감옥 모티프를 통한 도덕적 성숙*

정 영 섭
(경성대학교)

Jung, Young-Sub (2003). The moral growth through prison moti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9(1), 205-225.

This study attempts to survey the moral growth through prison motif. Malamud deals with the theme of suffering deeply. To learn love accompanied by suffering is the way to be moral and therefore suffering becomes Malamud's main concern. The hardship from suffering and love by trial leads Frank and Yakov to guest of selves. Through this their erotic impulses are changed into caritas. Malamud portrays Frank as a schlemiel. Like Malamud's other heroes he is also born to suffering, conditioned by it, and ultimately finds the meaning of his life in learning to deal with it. At last he carries the burden of supporting Helen and Ida. As a result, Frank becomes a social failure but a moral success as traditional American Adam. The prison motif is a rather strong function of setting symbolism in *The Fixer*. Yakov is imprisoned for a heinous crime that he did not commit. Yakov experiences hard physical and spiritual pains in prison for two and half years. His bitter suffering has matured him, changed him into a man with love, sacrifice and responsibility for others. At last he returns a true Jew and good man with perfect spirit.

[prison motif/moral growth/schlemiel/father-son relation,
감옥 모티프/도덕적 성숙/슐레미엘/부자관계]

1.

버나드 멜라무드(Bernard Malamud)는 유대인의 정신적 유산과 미국적 전통이라는 두 개의 문화적 배경을 소설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문화의 복잡성 속에서

* 이 논문은 2002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연구비로 연구되었음.

현대의 주변인이 겪는 고통과 갈등을 통한 도덕적 성숙이라는 주제를 일관되게 사용해 왔다. 작가의 도덕적 주제는 영웅의 의식과정, 감옥 모티프, 부자관계, 색깔 이미지리 그리고 계절주기를 포함한 자연물 이미지리를 통해 상징적으로 묘사된다.

Alter(1994)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문학사의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한 유태계 미국소설의 등장과 함께 멜라무드의 작품은 주제와 형식면에서 독특한 면모를 갖고 있다(p. 2)라고 지적했듯이, 멜라무드의 문학적 장치에 대한 연구는 주제연구 못지않게 중요하다. 멜라무드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시학적 요소를 담고 있어서 신화나 상징적 요소들 즉, 문학적 장치가 도덕적 주제를 한층 더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작가는 이러한 문학적 장치를 통해 사회적 현실 문제와 그 해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문학적 장치가 내용과 등장인물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 작품 연구의 주안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멜라무드의 경우 있어서 감옥 모티프는 작가의 문학적 배경과 사상을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주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멜라무드 소설의 배경은 20세기 중반 이후의 현대가 아닌 한 세대전의 유태인 1세대의 어려웠던 때나 그 이전이며 장소도 외부세계와는 고립된 상점, 아파트, 화실, 캠퍼스, 심지어는 진짜 감옥으로 묘사되고, 주인공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무능과 어리석음 때문에 희생당하는 숄레밀적 인물들로 등장한다. 어떤 비평가들은 유태인이라는 상황을 감옥 모티프의 중심적 상징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징적으로 유태인 신분의 제약은 그들에게 한계와 책임을 지우면서 자유를 더 많이 음미할 수 있게 한다는 아이러니를 던져주기도 한다. Alter(1970)는 감옥은 작가가 던지는 작가적 제시(p. 210)라고 언급하고 있고 이 속에는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도 감수해서 이겨 낼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는 인간은 환상적이거나 자기기만적인 자유만을 향유할 수밖에 없다는 작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멜라무드는 그의 소설에서 주인공들을 감옥이라는 한계 상황에서 겪는 고통을 통해 자유와 정신적 승리를 얻어 구원에 이른다는 주제를 한층 부각시켜 주고 있다. 감옥과 같은 제한된 상황이 프랭크(Frank)로 하여금 인내력과 자아각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이기적 자아를 초월하여 타인에 대한 책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야코프(Yakov) 역시 자신이 벗어나려고 애쓰던 유태적 정체성을 수용하고 동족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여 동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다.

부조리와 환경의 피해자인 모리스와 프랭크, 그리고 2년 반 동안 혹독한 수감생활의 고통을 겪은 야코프가 실패와 좌절의 연속에서도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그 이면에 내재한 소박한 인간으로서 험난한 세파를 헤쳐나간다. 작가는 그들은 살아가는 동안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인간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는 고통의 산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상과 현실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고 있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궁극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 등의 도덕적으로 개안해 가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점원』(*The Assistant*)에서 가게가 무덤과 다를 바 없지만 모리스와 프랭크에게는 궁극적으로 신성한 장소가 된다. 두 사람은 가게를 등지지 않고 거기서 정신적 위안을 추구한다. 가게는 그들에게 고난을 통해 도덕적 승리를 쟁취하는 투쟁의 장소가 된다. 특히 프랭크에게 가게는 모리스의 미덕을 몸소 배워 실천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프랭크는 타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가르치는 정신적 아버지인 모리스(Morris)와 구원의 장소인 가게를 떠날 수 없다. 프랭크는 파산지경에 이른 가게를 떠나라는 아이다(Ida)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곳을 떠나지 않는다. Hassan(1961)의 말처럼 모리스의 가게는 프랭크에게 천국이며 고통을 통한 도덕적 성숙의 장소가 된다(p. 164).

작가는 『수선공』(*The Fixer*)을 집필하기 위해 감옥에서 인간이 어떻게 진정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Beiliss사건을 소재로 삼았다. 『수선공』은 주인공 야코프의 사고와 감옥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도덕적 인간으로서의 그의 개인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작가의 가장 독창적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야코프는 고통에 대한 수동적 체념의 자세에서 벗어나 멜라무드의 다른 인물들 보다 더욱 강하게 고통에 저항하는 인물로 묘사되어있다. 작가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고통의 유용성에 의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야코프의 변모해 가는 과정과 수감생활을 통한 그의 도덕적(인간적)성숙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원』의 가게와 『수선공』의 감옥이라는 한계상황을 통해 프랭크와 야코프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성숙해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점원』은 1950년대 후반기 뉴욕의 빈민가 블루크린(Brooklyn)에 자리잡은 유태계 이민 모리스가 경영하는 보잘것 없는 가게를 무대로 한 성실하고 자선심이 강하지만 늘상 손해만 당하는 슬레밀적 인물 모리스와 그 가족의 삶의 애환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부랑아이며 이교도 청년 프랭크가 모리스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하여 속죄와 고행을 통해 착한 인간으로 재생되어 가는 고통을 그리고 있다. 주변적 인물인 두 사람이 보여준 인간에는 질곡된 한계 상황에서 겪는 인간관계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은 풍요신화의 끝과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1월 초 모리스가 몇 안되는 단골 손님에게 3센트짜리 빵을 팔기 위해 아침 6시부터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모리스는 아내 아이다와 함께 가게에서 하루에 16시간씩 고된 일을 하지만 겨우 생계를 이어갈 정도로 구차하다. 두 사람은 중년의 나이를 훨씬 넘었고 어려운 그들의 삶이 외동딸 헬렌(Helen)에게 미래를 보장해 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아 버린다. 황량한 모리스의 가게는 “어둡고 긴 터널”(p. 8)로 “열린 무덤”(인간의 한계상황인 제약의 실증으로서 이것은 쓰라린 고통과 좌절의 원천이 되

고 있음)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감금의 장소와 다를 바 없다. 그렇지만 모리스는 그 곳(감옥)이 자아를 초월하여 인간의 자유영역을 확대시켜주는 삶의 치열한 전쟁터로 생각한다(Stern, 1975, p. 54). 이 무덤에서 21년간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 온 것을 볼 때 그는 인내의 표본이며, 겸양자이자, 유대인 그 자체이다.

모리스는 박해를 피해 러시아에서 약속의 땅(미국)으로 도망쳐 나온다. 기대와는 달리 그는 미국에서 많은 것을 바라지만 얻은 것이라고는 거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 그는 “고혈을 짜는 상점”(p. 28)이 그의 삶터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여긴다. 불행하게도 그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만큼 당차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상점 속에 더 깊이 칩거시킴으로써 어렵게 얻은 자유마저 잃게 된다.

모리스가 물질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유대 이민자들도 있다. 샘 펄(Sam Pearl)과 윌리엄 카프(Julius Karp)가 당사자들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물질적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러시아의 짜르(Tsar)군대에서 도망쳐 나올 정도로 용감한 모리스가 미국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Avery(1979)는 그 이유를 모리스의 미국사회에의 적응능력 부족과 구세대의 계창소에서 찾고 있다(p. 82).

모리스의 구시대적 덕목은 정직과 성실에 바탕을 둔 유대적 도덕성이다. 모리스의 장례식 날 랍비(rabbi)의 추도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고객이 잇고 갚던 5센트를 되 돌려 주려고 두 블록을 눈을 맞으면서 뛰어가기도 하고, 손님들이 외상값을 갚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외상을 주기로 하는 등의 선행을 베푸는 착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덕은 미국사회에서 물질적 성공을 위한 조건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을 암담한 상황으로 몰아 부치는 경험을 맛보게 한다. 심지어 그가 믿었던 고객들마저도 그의 선행과 정직성을 알면서도 좀 더 화려하고 잘 정돈된 가게로 발길을 옮긴다. 이처럼 이들에 의해 추구되는 삶의 가치가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적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세계에서 모리스의 정직과 성실은 오히려 빛을 바래 어리석고 무능하게 여겨질 뿐이다.

속세의 가치관에 의하면 모리스는 고통과 불운 속에서 실패만을 겪는 슬레밀적 인물이다. 그는 러시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미국에 이민와서도 불운한 삶을 이어나간다. 미노규(Minogue)와 프랭크는 카프 가게를 털 계획이었으나 카프가 일찌기 문을 닫는 바람에 모리스의 가게에 침입한다. 또한 모리스의 가게 주위에 크고 새롭게 단장한 가게들이 들어서고 모리스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방화를 생각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 카프의 가게에서 불이 난다. 그리고 카프가 모리스의 가게를 사들이겠다고 제안할 때 모리스는 제설작업을 하다 폐렴에 걸려 죽게 된다. 이처럼 모리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는 뒤따라 어떤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 모리스의 착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탄한 인생의 여정을 갖지 못하고 불행만을 겪는 운명을 타고 난다. Richman(1966)은 모리스가 삶과 운명의 희생자인 전형적 유대인 수난자이며 모리스와 프랭크는 타인의 희생자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희생자들(p. 66)이라고 언급한다. 결국 모리

스는 안식일에 이교도를 위해 제철작업을 하다가 악성폐렴으로 죽게되고 가족은 무일푼으로 남겨지게 된다. 일생동안 모리스는 그가 받은 고통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희생자가 된다.

분명 모리스는 선의 실천자이며, 분별력 있고, 신중하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iron)이다. 이렇게 모리스가 손해를 감수하고 선행하는 것은 유대율법을 따르려는 신념 때문이다. 유대율법의 중심교리는 “바른 일을 행하고, 정직하며, 착해지는 것”(pp. 112-113)이다. 모리스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에게 종교적 신념은 행동강령이어서 고통과 자기희생을 치루는 것은 그의 본연의 자세이고 의무이며 또한 삶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이것의 성취는 미국의 꿈을 실행하는데 실패가 될 지 모르지만 정신적 세계에서는 성공을 의미한다.

멜라무드 소설의 인간관계는 Buber(1970)의 “I and Thou”관계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는 인간관계에는 실존의 두 형태인 “나와 너”, “나와 그것”의 두 관계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인간사이의 상호교감의 관계인데 비해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종 즉, 인간과 사물의 관계로서 조직하고 계획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이다.

모리스는 인간관계에서 타인을 위한 존재에 삶의 의미를 두고 있다. 이것은 모리스의 장점이면서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단점으로 표방될 수 있는 것으로 이원적 양상을 띄고 있다. 살아간다는 그 자체는 고통을 겪는 것이고 자신을 위한 고통은 자신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을 위한 고통이라는 모리스의 말은 경험에서라기 보다 유대인의 종교적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고통은 모리스의 삶의 요체가 되며 그의 선행의 필수적 요건이 된다.

모리스가 보여준 인간에 대한 신념과 타인을 위한 고통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거니와 여러 장면에서 나타난다. 모리스는 미덕의 실천가이며 선행의인 (lamed vov)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리스의 타인을 위한 고통은 가족을 위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인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현실적 패배와 상실속에서 타인을 위해 살아온 그의 삶속에 일관되게 나타나 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공통된 신성으로 연결되어 자신과 불리될 수 없는 종교적 도덕적 일체라는 유대교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모리스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유대적 도덕성에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이 프랭크이다. 모리스의 초라한 가게는 프랭크에게는 피난처이며 뼈를 깎는 재생의 장소가 된다. 프랭크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마저 어느날 집을 나간 후 행방불명이 된다. 그 후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가정에서 소개되어 철공소에서 밤낮으로 혹사당한다. 그는 혹사를 견디다 못해 그 집을 뛰쳐 나와 여러 곳을 전전한다. 그때부터 착하던 그는 굴절된 성격을 갖게 되어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의식과 사회에 대한 부정심리가 싹트게 된다. 모리스처럼 프랭크 역시 환경의 희생자이다.

그러나 이 고통이 또 새로운 고통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은 프랭크가 어릴적부터 마음 깊은 곳에 지니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성 프란시스에 대한 이상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이상은 모리스의 유태적 도덕성과 유사하다.

프랭크는 카프나 켈처럼 어떠한 댓가를 치르고서라도 물질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생의 목표인양 행동을 하는 그는 모리스 가게에서 돈을 훔치기도 하고 헬렌을 강간하는 온갖 악행을 반복한다. 그는 이런 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해 도덕적인 갈등을 느끼면서도 물질적인 부에 사로잡힌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 미국사회에서 프랭크가 물질적 성공을 위해서 벌이는 그릇된 행동을 그만두게 된 것은 그가 모리스의 유태적 도덕성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이다. 이 유태적 도덕성은 모리스의 도덕적 신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유태인이란 무엇인가라는 프랭크의 질문에 “그것은 타인에 대해서 옳은 것을 행하고 정직하고 선한 것을 의미한다네”(pp. 112-113)라는 모리스의 대답속에 압축되어 있다. 멜라무드는 유태적 도덕성의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리스를 슐레밀로 형상화 시킴으로써 모리스가 미국의 물질주의에 물들지 못하게 한다. 슐레밀은 불운한 운명에 처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과 행동의 부조리를 인식하고 그러한 불운속에서도 좌절하면서도 행운을 얻기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모리스와 일치한다. 또한 순진하기 때문에 세상의 악과 영합할 줄 모르며 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만을 받게된다는 점에서 모리스와 일치한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그만이 부조리한 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으며 인간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프랭크는 유태인에 대한 그 많은 호기심 때문에 유태인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율법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모리스는 당황속에서도 대답해야할 책임을 느끼고 유태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 선한 마음은 바로 인간이 바라는 선의 근원이며 또한 선은 도덕의 근본이다. 유태교에 있어서 근본적인 선의 원천은 바로 유태민족이 신성시하는 신의 계율이다.

모리스의 율법에 대한 기본정신은 유태교의 교리와 지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도덕적 행동에 의해서 나타난다. 모리스가 행동으로 보이는 도덕성은 소설의 도처에 나타나지만 프랭크가 의문시한 유태인에 대한 문제는 모리스의 장례식에서 랍비(rabbi)가 옳은 송덕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는 모리스가 고객이 잇고 놓고간 5센트를 되돌려 주기 위해 코드도 장화도 없이 맨발로 눈길을 두 블록이나 달려갔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유태적 경험속에 유태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모리스야말로 진정한 유태인이었음을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리스가 말하는 순한 마음이나 그것의 부연인 올바르게 정직하게 그리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도덕적 당위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은 현실적 상황에서 특히 미국의 물질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미국적 사회에서는 물질적 고통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모리스와 프랭크의 공통점은 둘다 불운에 시달리는 슐레밀적 인물이라는 것이다. “나는 아무런 대가없이 내 삶을 포기했어”(p. 200)라는 모리스의 말처럼 그의 생애는 물질적 고통과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불운은 온종일 애써 번 10달러마저 털리고 머리를 강타당해 쓰러지는 순간부터 계속된다.

그는 의미도 소리없이 쓰러졌다. 그날로 끝장이 났다. 다른사람들은 운수대통인데 그의 운이란 그정도였다(p. 10).

이 절규는 그의 불운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프랭크도 모리스와 다를 바 없다. 고아 신세로 25세까지 노숙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아갈 정도로 그의 삶은 언제나 물질적 고통의 연속이었다. “나에게는 잘못된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결국에는 올라가에 걸려들고 말지요”(p. 36)라는 그의 탄식처럼 그의 삶은 하강곡선을 그려왔고 가게를 털어 한 푼을 챙기려던 그는 모처럼의 시도마저도 실패하고 만다. 그는 돈 많은 카프의 주류도매상을 털려고 했으나 카프가 눈치를 채고 일찍이 문을 닫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한 모리스의 가게를 털고 나서 두 사람의 고통의 만남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 고통이 또 새로운 고통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은 프랭크가 어릴적부터 마음 깊은 곳에 지니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성 프란시스에 대한 이상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이상은 모리스의 유태적 도덕성과 유사하다.

그가 악한 성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지 않는 변모의 가능성을 지닌 인물임을 암시하는 부분을 성 프란시스(St. Francis)와의 연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고아원 시절 한 목사로부터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새로운 삶을 인도해 줄 정신적 지주로 생각한다. 어느 날 펠의 가게에서 성 프란시스의 그림을 보고 프랭크는 제차 심취한다. 그림을 보고 있던 프랭크가 펠에게 성 프란시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낮선 사람(프랭크)은 유테인(펠)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 분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보는 견지에서 새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용기를 가져다 주지요.” “그가 새에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위대해 졌다는 겁니까?”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분은 소유하고 있던 모든 물건, 돈, 등에 걸치고 있던 옷까지 남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 분은 가난을 즐거움으로 느꼈습니다. 그 분은 가난이 여왕과 같다고 말하면서 아름다운 여인인 것처럼 가난을 사랑하셨습니다.”(p. 31).

프랭크가 노숙하면서 쓰레기통의 음식찌꺼기를 먹으면서도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도 성 프란시스와 같은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암시해 주고 또한 성 프란시스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프랭크가 모리스 가게의 점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워드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모리스 가게에서 삶의 편리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선악의 양면성에 기인한 것이다. 모리스의 가게는 길고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곳이지만 프랭크에게는 떠돌이 생활보다 훨씬 큰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점원

이 됨으로써 프랭크는 외부세계에서 벗어나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축축한 잠자리를 모면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구금된 인간이 구금하는 힘에 반응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갈 수 있다”(p. 152)라는 Tanner(1968)의 지적처럼 프랭크는 새로운 삶을 영위할 터전을 마련하게 된다.

프랭크는 훌륭한 서비스와 재빠른 동작으로 고객들로부터 “최고의 상인”(p. 63)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매상도 올린다. 그러나 모리스가 가게를 잠시 비울 때마다 물건을 팔고도 기록하지 않고 돈을 챙긴다. 그는 이것이 사악한 짓인 줄 알면서도 절도행위를 계속한다. 프랭크의 양면성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과 쾌감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끔 해준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없었다면 모리스의 소득이 훨씬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푼돈 정도 훔치는 것을 미안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프랭크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도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 그의 감정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절도 행각을 그만두지 못한다. Hassan(1969)은 프랭크를 두고 성인이 되거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인물(p. 75)이라고 말하고 있다. 분명 그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범죄본능과 선의 본능을 동시에 지닌 야누스적 인간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어느 날 프랭크는 모리스에게 수입도 보잘것 없는데 적당히 속여파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다. 그러자 모리스는 어떻게 납을 속일 수 있느냐며 몇 푼의 돈보다 양심이 더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점원으로 들어오기 전 어느 날 프랭크는 모리스의 우유상자를 날라주고 커피와 빵을 대접받는다. 게걸스럽게 먹으면서 프랭크는 “정말로, 이건 맛있는 빵이군요”(p. 33)라고 말한다. 이것은 굶주림에 대한 욕구충족이자 부성애의 인지이며 모리스의 그리스도 역할을 인정하는 말이다. 한번은 프랭크가 지하실에 숨어 지내다가 모리스에게 발각되는데 모리스가 그의 애절한 사정을 듣고 난 후 샌드위치를 대접한다. 모리스가 보여준 인간성을 통해 프랭크는 무한한 감명을 받는다. 과거와 현재에 고통을 겪는 프랭크와 모리스는 쌍방의 통한이라는 경험에 동정을 느끼는 데서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이룬다(Ducharme, 1974, p. 104).

프랭크는 성 프란시스와 모리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난 속에서도 선행을 한다는 것이다. 성 프란시스에 의해 대변되는 프랭크의 가난의 개념은 모리스와의 관계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점차 바뀌어 간다. 가난과 고통에 대한 프랭크의 관점은 너무 과장되고 이론적이며 편견에 의존한다. 기독교인인 그에게 모리스가 겪는 고통은 이질적인 문화의 전형으로 보인다. 모리스의 진실성, 동정심, 그리고 인내심에 매혹되기도 하고 혐오감을 느끼기도 한 프랭크는 모리스의 그러한 성품을 유테인만이 갖는 특성으로 생각한다. 프랭크는 유테인은 고통받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모리스에게 유테인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던진다.

“누구든지 살아가면 고통을 받게되지.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을 받지만

그들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러나 유대인이 율법을 위해 고통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댓가 없이 고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당신은 무엇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죠, 모리스?” 프랭크는 말했다. “자네를 위해서이지.” 모리스가 조용히 말했다. 프랭크는 탁자 위에 칼을 내려 놓았다. 입에 통증이 왔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냐 하면 자네도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야.” 프랭크는 얘기를 그 정도로 해서 덮어두었다(p. 113).

모리스는 율법에 따라 옳은 일을 행하고 정직하고 착해지기 위해서는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모리스의 이야기를 듣고 프랭크는 율법을 선인의 도덕적 객관물로 기독교 교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모리스의 교육관은 말로서가 아닌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준다. 그는 돈을 버는 것 보다 더 상위의 가치인 이웃을 돕는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프랭크에게 감화를 주며 프랭크는 점차 모리스를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범례를 따르게 된다. 이처럼 모리스가 보여준 참된 인간성을 통해 프랭크는 무한한 감명을 받는다.

한때 프랭크는 미국의 꿈에 사로잡혀 범죄에 가담하고 모험도 하여 운명을 바꿔 귀공자처럼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성 프란시스의 성스러움과 모리스의 도덕관을 받아들여 물질적 성공을 배척하고 정신적 성장을 도모해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프랭크는 유대적 도덕성에 친숙해지고 모리스를 존경하게 됨으로써 두사람의 관계는 주인과 점원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더 나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승화한다. 결국 프랭크는 과거의 과오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진다. 그는 율법을 따르고 고통을 인간경험의 지상목표로 삼는다. 만일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라면 그것은 어떤 중요한 것을 위한 고통일 것이다. 이처럼 고통의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한때는 감옥과 같은 모리스의 가게를 자신의 안식처로 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의 한계상황을 뛰어넘어 타인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도덕관을 확립하게 된다.

모리스가 프랭크에게 율법을 통해서 삶의 추상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면 헬런은 그가 율법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된다. 프랭크는 그녀에 대한 충동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던 욕정에서 벗어나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고 죽은 모리스의 성인다움에 도달한다. 프랭크는 처음부터 헬런에게 관심을 갖고 접근한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자 프랭크는 매번 뉘우치면서 헬런에 대한 욕정으로 그녀의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 보기도하고 가까이서 그녀를 보기 위해 거짓으로 전화가 왔다고 하여 그녀를 가게로 불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남자를 물질적 욕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헬런은 프랭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헬런의 어머니 아이다도 이교도이고 부랑자인 프랭크가 헬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한다.

그러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없어 외로워하는 헬런과 프랭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아하는 사이가 된다. 프랭크를 좋아하면서도 사랑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는 몸

을 허락할 수 없다고 프랭크의 육체에 대한 욕구를 거절해오던 헬린이 마침내 프랭크와 만나기로 한다. 그날은 프랭크가 새 사람이 되겠다고 훔친 돈을 변상하기 위해 수중에 있는 돈을 모두 금전등록기에 넣어버린 날이다. 그래서 그날 저녁 헬턴과의 데이트 비용마저 없게 되자 프랭크는 다시 돈을 훔치다가 모리스에게 발각되어 가게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런데 프랭크의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날 저녁 프랭크가 약속장소에 늦게 도착해 보니 워드가 헬턴을 겁탈하려는 중이었다. 워드를 물리친 프랭크는 찢겨진 옷 사이로 그녀의 육체를 보고 욕정을 참지 못해 그녀를 범해버린다.

Hassan은 이소설 속의 모든 행동은 아이러니로 짜여져 있으며 모든 동기는 의도하는 것과는 반대로 진행된다(p. 167)라고 지적한다. 감옥과 같은 모리스의 가게가 프랭크에게는 도덕적 성장의 장소가 되듯이, 헬턴의 “이 할레도 받지 못한 몸”(p. 151)이라는 저주는 프랭크로 하여금 끝없는 죄의식과 자책의 고뇌를 하도록 만든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연인에서 증오자로, 희생자에서 고통을 주는 자로, 성인에서 죄인으로 탈바꿈한다. 프랭크의 정신적 고뇌는 새로운 식료품 가게의 등장으로 점차 쇠락해가는 가게의 암울함과 헬턴의 그에 대한 냉담, 그리고 모리스의 가스사고와 죽음의 절망적인 사건들로 점점 더 커진다. 프랭크의 죄책감, 절망, 그리고 자기혐오는 과거에서부터 그를 움아매던 것과는 다른 덧을 느낌과 동시에 자신에게 내재한 도덕성을 깨닫는 자아각성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강도짓에 가담했지만 이전 헬턴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진실로 속죄하려한다. 훔친 돈을 금전등록기에 되돌려 넣고 자신의 보수마저 반환하고 아이들에게 크래커를 공짜로 주기도 한다. 가게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마커스의 집에 외상 값 받으러 갔다가 궁핍하게 사는 것을 보고 비상금으로 남겨둔 3달러마저 전해주는데 이런 행위에서 그의 도덕적 성장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모리스의 장례식에서 프랭크는 “고통은 …… 의복과 같은 것이며 유대인은 그 고통의 옷을 입고있는”(p. 204)이라고 마음 속으로 생각하지만 이제는 프랭크 자신이 고통이라는 의복을 입게 된다. 모리스의 영향 하에 미국의 꿈을 쫓던 프랭크는 모리스와 마찬가지로 고된 노동 속에서 고통받으며 어떠한 희망의 전조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처지에 빠진다. 그러나 그가 물질적면에서는 어떠한 실리도 얻지 못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있는 어떤 것을 얻는다. 그는 욕정과 물질적 욕구를 버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지는 인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소설 후반부에서 프랭크가 모리스와 일치하는 상징적 장면은 그가 완전히 도덕적으로 성숙하여 모리스와 같은 인물이 되었음을 암시해 준다(p. 205).

모리스가 죽은 후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던 프랭크와 헬턴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재결합의 관계로 돌입한다. 프랭크가 헬턴에게 장미를 주는 행위는 순수한 정신적 사랑의 표시이다. 프랭크의 도덕적 전환은 미성숙에서 성숙의 과정으로의 전환이며 정신적 자유의 획득이다.

유월절이 지나서 프랭크는 할레수술을 받는다. 프랭크의 할레와 개종은 그의 성스럽

지 못한 성욕의 제거이며 타인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사랑의 원리를 펼쳐주는 프랭크의 인간적 승리이며, 유태율법과 성 프란시스가 공존하는 종교를 초월한 인간성의 구원이다. 그가 위기의 극복을 통해 자기수양을 터득하여 타인을 위해 봉사하기 때문에 그의 고통은 지고의 가치가 있다. 프랭크는 유태성, 기독교성 그리고 휴머니티를 수용한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다.

III.

『수선공』은 미국의 Sacco와 Vanzetti 사건, Dreyfus 사건을 참고하여 제정 러시아 시대에 일어났던 Mendel Beiliss 사건(1911년 3월 러시아의 키에프에서 한 소년이 살해된 사건)을 소재로 한 것이다. 그 무대는 제정 러시아 시대로 이동되며 주제는 야코프가 기독교 소년 살인죄로 체포되어 감옥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정치적, 사회적, 인간적으로 개안해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야코프는 『점원』의 모리스처럼 유태적 전통을 이어 받은 슬레밀적 인물이다. 『수선공』의 러시아는 레빈(Levin)의 카스카디아(Cascadia)처럼 현대 미국의 메타포이다. 특히 야코프의 진짜의 수감생활은 현대의 인류가 안고 있는 실존주의적 고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야코프는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시대의 희생물이다. 그의 고난과 불행은 원천적으로 그의 운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모친은 사망하고 1년 후에는 부친마저 만취된 러시아 군인에 의해 사살된다. 그는 고아원에서 “꿈만을 먹으면서”(p. 9) 익힌 기술로 목숨을 연명해 가지만 노력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허기를 면하기 위해 노일전쟁때 군에 입대하지만 천식으로 쫓겨난다. 레이즐(Raisl)을 만나 결혼하나 가난은 여전하다. 레이즐이 유태인 거주지(shtetl)을 떠나자고 애원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러자 아내는 딴 사내와 눈이 맞아 가출하고 이를 계기로 그의 삶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짜증으로 가득차게 된다.

야코프는 자존심이 강하고 야심이 대단한 인물이다. 그는 독학으로 히브루어와 러시아어를 익히고 역사, 지리, 과학, 산술, 그리고 스피노자(Spinoza) 철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다. 머리가 기술이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이 자신보다 물질적으로 더 윤택하게 살아가는 걸 보고 자신의 생활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야코프가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은 자식이 없는 아버지이고 아내가 버린 남편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자식이 없다는 사실은 “산 송장”(p. 21)임을 뜻하고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무능한 남자로서의 충분한 실격사유가 된다. 이러한 처지가 그를 자아부정이라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이제 숙명적으로 야코프는 키에프를 떠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다다르게 된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음식, 돈,

지식에 대한 욕구, 그리고 세상의 경험이라는 기본욕구가 그의 마음을 부채질하게 만든다.

야코프의 슈테틀의 거부는 유태성의 거부이다. 새로운 세계로 잠입하기 위해 그는 본래의 신분을 숨겨야 했다. 장인 슈무엘은 “자네는 항시 정이 없어”(p. 9)라고 야코프의 몰인정한 태도를 꾸짖는다. 그리고 창조주에게 욕되지 않게 “수염을 기르라”(p. 2)는 슈무엘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턱수염을 깎아 버린다. 유태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는 창조주의 존재와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며 탈 유태성의 선언이다.

슈테틀을 떠나 키에프(Kiev)로 가서 잘 살수만 있다면 유태성도 창조주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야코프의 일관된 생각이다. 야코프가 키에프로 가기 위해 드네프로(Dnieper)강을 건너는 사건은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다. 구름에 반쯤 가리워진 달이 비치는 드네프로강의 모습은 야코프에게 불길한 운명을 예언해 준다. 뱃사공의 저주와 욕설에 주눅이 든 야코프는 뱃삿으로 “늙은 유태인처럼 보이는”(p. 28)말을 뱃사공에 주어 버린다. 또한 유태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물건이 든 보따리를 강물에 던져 버린다.

키에프에서 야코프는 신분을 숨기고 러시아의 구사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의 첫발을 내딛는다. 우연히 니콜라이(Nikolai)의 목숨을 구해 준 인연으로 그는 벽돌공장에 일자리를 얻는다. 높은 급료를 받는 감독직은 동료 인부들로부터 미움을 사기에는 충분하다. 아니나 다를까 동료 인부들과 싸고서 벽돌을 도둑질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던 현장주임 프로스크(Prosk)와 마찰이 생긴다. 야코프는 가짜신분이 노출될까 봐 조바심하고 프로스크는 야코프의 말투를 문제삼아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 니콜라이가 야코프의 성실한 근무태도를 칭찬하자 그의 불안은 고조된다. 그러나 어느날 여드름 투성이의 한 소년이 벽돌공장에 숨어들어 못된 짓을 하다가 야코프에 의해 쫓겨나고 또한 길에서 아이들에게 물매를 맞던 한 유태율사를 구해준 것이 동기가 되어 그의 유태인 신분이 발각되어 그 소년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수감된다.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는 운명에 의해 미리 준비된 함정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야코프는 복합적인 비극적 요인을 알고 있다. 그의 유태인 신분은 피상적인 조건일 뿐이고 그의 운명을 극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주어진 여건에서 그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는 『수리공』의 표제에서부터 드러난다. 야코프와 관련된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부서진 상태로 있다(Ducharme 1974, p. 47).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 레이즐이 그렇고 키에프로 가는 여행 중에 망가진 마차 바퀴가 그렇다. 야코프의 운명은 이미 그의 이름이 짐지해 주고 있다. Shepsovitch(son of sheep) Bok(goat)는 희생적 신분 즉, 속죄양으로서 그의 운명을 예고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어휘가 풍기는 의미는 아이러니하다. 양은 복종을 상징하고 야코프는 복종을 거부한다.

유태인이 혐오스러워 유태인임을 부정하고 러시아인 행세를 하던 야코프는 감방에서 온갖 고초를 겪는다. 그는 감옥이라고 생각했던 슈테틀을 벗어났지만 진짜 감옥에

감히는 아이러니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러 사람들의 불리한 증언으로 그는 꼼짝없이 살인범으로 몰린다. 단독감방으로 이송된 후 그는 죽음의 공포, 간수들의 야만적 행위, 추위, 기아, 독충, 고독 등의 고초를 겪는다. 그는 비로소 자존심과 야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감옥이라 생각했던 슈테틀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다”(p. 70)라고 때늦은 후회를 한다. 야코프는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연과 역사가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을 예기치 못하는 사건에 연루시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부조리한 사회에서 종교살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2년 반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는 고행한다. 그는 비로소 수감의 체험을 통해 많은 것을 터득한다(Mellard, 1970, p. 80).

감옥에서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야코프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읽으며 일찍이 그가 습득했던 스피노자 철학을 상기시키면서 신과 고난과 국가와 역사 속에서의 개인의 존재를 깊이 생각한다. 야코프가 비정적인 시련 속에서 정신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간수 지트니악(Zhitnyak)이 신약성서를 건네 줄 때부터 시작된다.

그는 예수의 이야기를 읽고 예수의 고통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 특히 야코프를 깊게 감동시킨 것은 십자가에 못박혀 구원을 요청하는 예수의 모습이였다. 그렇다고 성서에 대한 야코프의 관심이 급격히 긍정적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 그 한 예로 신부가 “당신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준다면 하느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해 줄 거요”(p. 213)라고 설교할 때 야코프는 그럴 수 없다고 강하게 반항한다. 이것은 아직도 그가 적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부간수에게 신약성서를 빼앗기고 나서 히브류 성서에서 찢겨진 몇 페이지를 읽고 구약성서의 하느님에게서 나타난 인간적인 면모를 보고 당황한다. 그는 신과의 약속을 넘어서 인간으로서 경험해 왔던 유대인의 생활을 신성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인간에게 내려진 벌을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신이 그 풍요한 경험을 시기하여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구약성서 속에 나오는 신을 야코프는 전반적으로 긍정할 수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스피노자와 같이 이성을 통해 자연의 현상 속에서 신을 발견하여 그 신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다. 이와 같이 그는 성서와 신과 스피노자의 철학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적어도 그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겪어 왔던 것이 진실한 의미에서 고난이 아니라는 것만은 막연히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인간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며 자기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야코프가 배워야 할 점은 모리스가 가졌던 생활의 지혜 즉,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야코프는 고통으로부터 현실을 배운다. 잠결에 관속에 누워 있는 장인의 모습을 보고 야코프는 “장인어른, 죽지 마세요... 장인 어른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치리다”(p. 245)라고 소리친다. 슈무엘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은 그가 처음으로 이기심을 버리는 태도이지만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아니다. 야코프는 자신의 거짓 자백이 유대인의 대학살을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고통을 선택한다. 그 이유는 그가 고통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고 변절이 더 나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고통은 책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멜라무드의 다른 주인공들은 순응을 미덕으로 받아들이지만 야코프에게는 저항만이 미덕이다. 그는 고통받는 자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 그러나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덜어 주지 못한다면 그를 위한 사랑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다.

야코프의 태도 변화는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자신을 얼어매는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에서 시작한다. 과거로부터의 도피욕구는 현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한 방편이다. 인간의 삶은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야코프는 서서히 자신을 반성한다. 아내의 만류를 받아 들였었다면 지금과 같은 처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면서 수감생활을 동족을 저버린데에 대한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로 받아들이고 그는 과거로에의 복귀에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수감생활은 포기한 유대인 신분을 받아들이는 야코프의 일종의 정신투쟁사이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깨닫고 비로소 토라(Torah)신을 인정한다. 이제 야코프는 유대인을 옹호해야 할 입장에 선다. 그러던 중에 그는 유대인 단체가 사주하여 소년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검사의 제안을 받는다. 그전 같았으면 자신이 유대인임을 저주했겠으나 그 순간만큼은 유대인 신분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검사의 회유를 단호히 거절한다. 이젠 아내에 대한 앙금도 지워 버리고 면회 온 레이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난 처음부터 이 날까지 우리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온 바로는 내 자신 이상으로 당신을 비난할 수가 없소, 당신은 베푼 것에 비해 받은 것이 더 적었어요. 하지만 난 과분하게 대접받았어요. 그 걸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었고 어떤 사람들은 실수를 깨닫기도 전에 술한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는데 내가 그렇소. 정말 미안하오(p. 259).

아내가 간부와 함께 도망갔을 때는 “자궁이 찢겨지고 젖도 나오지 말라”(p. 193)고 악랄한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녀가 야코프의 감방에 찾아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 때는 오히려 그녀를 측은하게 생각한다. 자신은 혹독한 고통을 겪고 나서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야코프가 되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간부와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를 잘 알고 있고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간수의 눈을 피해 그는 “여보, 당신의 아들인 차임의 아버지가 되어주지”(p. 262)라는 메모를 적어 건네준다.

이 두 개의 수용은 야코프가 고통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또한 거만하고 편협한 그가 겸손하고 이해심 있는 인간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레이즐의 사생아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안전한 생존을 가능케 해 준

것이며 부서진 인간상으로 가득 찬 러시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이것은 야코프의 도덕성의 회복이며 인본주의의 표출이다. 야코프는 레이즐을 수치스러운 지난날의 상징으로 보았지만 이젠 유대인의 신분 때문에 박해받고 희생당하는 유대민족의 상징임(Eigner, 1970, p. 102)을 깨닫는다. 너무나 오래동안 고아로 지내왔던 야코프는 모리스와 프랭크의 범례를 따라 성장하는 것과는 달리 불의의 상징인 짜르(Tsar)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아버지 상을 세워 나간다. 야코프는 러시아의 불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리부친이라 할 수 있는 일련의 인물들의 영향을 받는다.

야코프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에 장인 슈무엘이 그의 유일한 아버지이다. 슈무엘은 전형적 유대인으로서 도덕적, 종교적 표준이 되어 있으며 야코프의 유대의식을 심어주는 영적 지도자로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유대인들은 역사적, 운명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야코프에게 보여 주지만 그는 오히려 그러한 장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힘으로써 슈테틀을 떠나게 되고 이로써 두 사람의 부자관계는 단절된다.

야코프의 아내 레이즐이 그를 버리고 떠나지만 슈무엘은 야코프의 곁에 남아 자비가 없다고 충고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시내를 지나가고 있을 때 우연히 안식일 기도에도 필요한 돈을 구걸하는 한 거지를 만났을 때 야코프는 그의 요구를 냉정히 거절한다. 또한 슈무엘은 야코프에게 타고 가는 말에게 채찍질하는 것을 되도록 삼가도록 충고도 한다. 그 뒤 야코프가 키에프에 도착했을 때 많은 거지 떼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중 복음서를 읽고 있는 한 사람에게 일말의 동정을 보내지만 그들에게 아무 것도 주질 않는다. 슈무엘은 시간 나는 대로 야코프에게 신을 기억하고 참회하라고 충고한다. 슈무엘은 유대인 전통에서 등장하는 성자의 역할을 하며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의미로 연결된다.

슈무엘과 야코프 사이의 초기의 불화관계는 점차 순수한 부자관계로 되돌아간다.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슈무엘의 노력으로 면회가 이루어진다. 슈무엘은 면회를 허락 받기 위해 자신에게 40루블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단 10분의 면회를 허락 받는다. 게다가 굶주린 야코프를 생각해서 몰래 가지고 온 소금에 절인 오이마저 간수에게 빼앗기고 만다. 부정적인 야코프였지만 장인의 사랑을 마음 속 깊이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면회가 끝나고 돌아가려는 슈무엘에게 야코프는 간절한 부탁을 드린다.

“빨리요, 슈무엘,” 면회소의 널빤지로 만든 들여다보는 구멍에 입을 짓누르면서 야코프는 재촉했다. “저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주세요. 신문사에 달려가서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투옥시켰다고 말해 주세요. 필요하시다면 유대인 부자들, 로즈차일드에게 달려가세요. 도움, 돈, 자비, 저를 도와줄 훌륭한 변호사를 부탁드립니다. 죽기 전에 여기서 나를 빼내 주세요.”(p. 233).

그 후 야코프는 꿈속에서 장인의 모습을 보고 “슈무엘 영감님, 살아 계세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p. 245)라고 절규한다. 변호사 오스트로프스키(Ostrovsky)를 통해 장인의 죽음을 전해 듣자 “그는 신성한 분이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노라 했습니다”(p. 273)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장인의 죽음 앞에 숙연한 야코프의 모습에서 그가 슈무엘을 진정한 아버지로 받아들일게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이 유대성을 받아들여 슈무엘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가짜 아버지 레베데프(Lebedev)와는 달리 비비코프(Bibikov)도 야코프에게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다. 그는 야코프의 정신적 개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이다. 야코프를 둘러싼 적대적 외부 상황에서 야코프의 주장을 옹호하고 나섬으로써 그는 야코프를 진정한 의미에서 아들로 수용한다. 천식에 시달리는 친아들에게 보여 주듯이 그가 야코프에게 쏟는 애정은 동정심과 참 사랑의 발로이다. 야코프는 그를 통해 선하고 착하고 친절해야 한다는 진실된 삶의 좌표를 설정한다.

야코프의 투쟁의지는 차임(Chaim)을 아들로 받아들임으로써 절정에 달한다. 레이즐을 생각하는 야코프 자신은 성서(호세아서: 2: 207, 현대어역)에 나오는 호세아(Hosea)의 표상이다(Hoag 1975, p. 140). 레이즐은 온갖 고초를 겪고 또한 연인을 잃고 난 후 호세아의 아내처럼 야코프에게 돌아온다. “그(간부)는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했지만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버지가 되지요”(p. 260)라는 말에 감동하여 야코프는 그녀와 차임을 받아들인다. 이제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그는 슈무엘에게 아버지의 정을 실감한다. 처음에는 장인의 맹목적인 신앙에 거부감을 표했지만 장인에게 자비로운 아버지상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다.

간수 코진(Kozin)에게는 『점원』의 미노규 형사의 아들처럼 망난이 아들이 있다. 그의 아들 트로핌(Trofim)이 언젠가는 야코프처럼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야코프의 처지에 냉담할 수 없다. 아들이 시베리아로 유배 가는 도중 죽음을 맞게 된다. 그는 야코프를 대리아들로 선택하지만 결국 그를 보호하다가 죽게 된다.

부자관계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아버지들이 고통받는 아들 때문에 괴로워 한다는 사실이다. 황제에게는 혈우병의 아들, 비비코프에게는 천식의 아들, 코진에게는 방탕한 아들, 레베데프의 죽은 아들, 야코프의 사생아 등이 있고 야코프 역시 고아원에서 자란 아들이다. 이 모든 아버지들은 타인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의 전형이다.

그는 하루에도 두 번씩 옷을 벗기우는 굴욕을 겪는다. 야코프는 자신의 고통이 예수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유대인의 역사가 자신이 겪는 지금의 경험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란다. 그래서 그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고통이 의미있는 것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 이를 계기로 야코프에게 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그는 “비정치인”(p. 299)의 무존재를 선언하고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을 각오한다.

야코프의 황제에 대한 반항은 당연히 동포애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서 비롯된다. 정치적 변동은 통상 격렬한 혁명을 통해서 성취되며 통치자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야코프의 저항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이유에서 연유되긴 하지만 그에게 가해지는 종교박해 때문에 종교적 함축성을 띠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통의 맹목적 복종은 사회, 정치체도의 부당성을 묵인하는 증표이며 그릇된 제도와 야합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야코프의 저항과 그와 그리스도의 비교는 아이러니하면서도 타당성이 있다.

재판이 열리는 전날 밤 흰옷을 입은 비비코프가 꿈속에 나타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목적은 부당한 압제하에 신음하는 많은 유태인과 모든 약소 민족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데에 있다라고 가르쳐 준다. 이튿날 아침 법정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야코프는 투쟁 없이 자유를 쟁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성을 짓밟는 불의를 저지르는 국가는 반드시 타도되어야 함을 확신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혁명과 자유를 위해 만세를 외친다.

야코프는 전에 감옥에서 열병에 걸렸을 때 러시아 해군 제독의 제복을 입은 황제를 만나는 꿈을 꾸고 그는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은 국기를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러시아를 사랑하는 애국자이며 소년 살해혐의는 잘못된 것이니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나 재판을 받으러 가는 마차 안에서 다시 한 번 황제를 만나는 환상이 나타난다. 2년만의 옥고를 치른 야코프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는 황제의 잘못을 열거하고 해명을 요구한다. 러시아 국민의 보다 나은 복지와 미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이제껏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유태인에 대한 대량학살의 책임을 추궁한다. 황제는 자신은 통치자이긴 하나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역사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으며 또한 유태인 대학살은 순수한 국민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변명한다.

야코프는 가슴에 사무치는 수감생활에서 겪은 학대를 열거한 후 방아쇠를 당겨 황제를 쓰러뜨린다. 유태민족의 역사 밖에서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던 일개 수선공이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태인의 자유를 위해 압제와 맞서 투쟁하는 강인한 정치적 인간으로 성숙하게 된다. 자기 방어적 태도에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중적 인간으로 발전한다. 그것은 단순히 유태인의 자유를 위한 압제와의 투쟁이 아니다. 그것은 미약한 한 개인이 잘못된 제도에 항거하여 이것의 개선의지를 보여준다는 데에서 야코프의 정신적 성숙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지금까지 멜라무드의 『점원』과 『수선공』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감옥, 감옥과 같은

가게에서 겪는 고통과 사랑을 통한 도덕적 성숙을 살펴보았다. 작가의 최초의 소설 『내추럴』(*The Natural*)이 출판된 지 한 세대가 지난 지금에 그가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미국작가의 위치를 굳힌 것도 그가 작품에 도덕성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멜라무드의 작품세계는 개인의 도덕성과 존엄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멜라무드가 주장하는 도덕성은 무엇이며 또한 그것은 어떠한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시된다. Scheler(1961)가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은 그 본질에 있어서 자유결정을 할 수 있는 동물이다. 이 자유결정은 오늘날 신을 잃어버린 세계에서 인간의 가치와 영광을 확신시켜 주며, 현대적, 지성적 판단력을 내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p. 101). 인간이 된다는 것은 선하고, 정직하고, 착해지는 것이며 이것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선택한다는 것과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멜라무드는 고통이 수반되는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 훌륭한 도덕적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멜라무드의 첫 관심도 주인공들이 자아인식에 이르는데 주요한 원천이 되는 고통에 있다. 이 고통은 극기의 노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의 둘째 관심은 자아의 굴레와 비인간화된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자기 승화에 있다. 이 자아극기는 많은 고통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랑을 통한 시련과 관계가 있다. 고통과 사랑에 의한 시련은 결국 멜라무드의 주인공들을 강렬한 자아탐색으로 몰아넣고 자아탐색의 과정에서 주인공들은 그들의 과거의 실수와 타인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되어 고난을 감수한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근원적인 에로스적 충동은 카리타스로 승화한다. 이와 같이 고통과 사랑을 통해 훌륭한 도덕적 인간이 된다는 멜라무드의 주제는 그의 모든 소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인공은 실패한 과거의 굴욕적 상황에서 탈피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그들의 희망은 결국 좌절되거나 희생과 책임을 지고 패배를 승리로 이끌어 간다.

세속적인 성공인을 갈구하던 프랭크는 진정한 스승 모리스의 교훈과 헬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새로운 인간으로 변모한다. 프랭크가 모리스의 도덕률을 따름에 따라 가게는 프랭크의 금욕을 계도하는 장소가 된다(Helteman, 1985, p. 50). 프랭크가 도덕적 가능성에 도달하고 어렸을 때부터 흠모해 오던 성 프란시스를 닮기 위해서는 구금의 삶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따라서 신체적 구금은 역설적으로 비쳐질지 몰라도 프랭크가 자신의 내부에 있는 저항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프랭크에게 필요한 것은 자아극기를 할 수 있는 감방이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장애물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자기의 성격적 파탄에 의해 보다 더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Tanner(1968)의 투옥된 사람이 투옥시키는 세력에 대항함으로써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낼 수 있다(p. 152)라는 언급은 프랭크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

프랭크는 그의 세속적 성공의 추구과정에서 자신의 이상적 인물과 정신적 아버지와 의 교감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정신적인 재생의 기회를 갖게 된다. 순간적 각성으로부터 시작된 이 여정에서 프랭크는 헬턴에 대한 사랑의 염원을 낭만적 환상을 통하여 승화

시키고 있고 모리스의 정신적 아들로 재생하려는 의지로 할례수술을 통하여 자기를 정화시키고 있고 프랭크의 이러한 일련의 염원과 의지는 궁극적으로 자기인식의 과정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자기도약에 대한 잠재성의 표출이라 말할 수 있다.

야코프는 그의 정신적 아버지들의 영향으로 자신이 거부했던 자아와 동족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스스로 아버지 상을 정립함으로써 정신적 재생에 이른다. 다시 말해, 슈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고 비비코프를 통해서 책임과 정의 그리고 인내등을 깨달아 정신적 재생에 이룬 야코프는 고통받는 동족,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해 고통받고 희생하는 예수의 이미지로 부각됨으로써 불의와 악에 맞서 정신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인물로 변모한다. 게다가 아내 레이즐과 간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를 자식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다. 더구나 환상 속에서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의 대부가 되어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에게 풍요를 안겨주는 야코프의 행위는 감옥에서의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고 가혹한 현실과의 투쟁에서 자기승화를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야코프는 고통을 통해서 사회의 제반사에 대해 개안하여 도덕적으로 재생한다. 이세상에 공존하며 산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희생은 사랑과 책임감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 결과 우리는 현재의 상황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현재의 상황보다 더 나은 삶은 물질적 속성이 아니라 정신적 측면이다. 야코프는 고통을 통해서 스스로 타인에 대한 배려, 책임감, 사랑을 깨닫는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위해 투쟁하고 희생해서 공동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도덕가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참 고 문 헌

- Abramson, Edward A.(1993). *Bernard Malamud Revisited*. In Warren French (Eds.), NewYork: Twyne Publishers, Inc..
- Alter, Iska(1981). *The Good Man's Dilemma: Social Criticism in the Fiction of Bernard Malamud*. New York: AMS Press, Inc..
- Avery, Evelyn Gross(1979). *Rebels and Victims: The Fiction of Richard Wright and Bernard Malamud*. New York: Kennikat Press Corp..
- Bryant, Jerry H.(1958). *The Open Decision: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 and Its Intellectual Background*. New York: Scribner Library Books.
- Chase, Richard(1980). *The American Novel and Its Tradition*.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Cohen, Sandy(1974). *Bernard Malamud and the Trial by Love*. Amsterdam: Rodopi N. V..
- Ducharme, Robert(1974). *Art and Idea in Novels of Bernard Malamud: Toward the Fixer*. The Hague: Mouton and Co..
- Eigner, Edwin M(1970). The Loathy Ladies In Leslie A. Field and Joyce W. Field(Eds.), *Bernard Malamud and the Critics*(p. 102).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Field, Leslie A. and Field Joyce W. (Eds.). (1970). *Bernard Malamud and the Critic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_____ (1975). *Bernard Malamud: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Inc..
- Guttmann, Allen(1971). *The Jewish Writer in America: Assimilation and the Crisis of Ident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ssan, Ihab(1961). *Radical Innocence: Studies in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ershinow, Sheldon J.(1980). *Bernard Malamud*. New York: Frederick Ungar Publishing Co..
- Hoag, Gerald(1975). Malamud's Trial: *The Fixer* and the Critics In Leslie A. Field & Joyce W. Field(Eds.), *Bernard Malamud: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p. 140.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Inc..
- Ji-moon, Koh(1982). A Talk with Bernard Malamud *American Studies*, V. American Studies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Klein, Marcus(1964). *After Alienation: American Novels in Mid-century*. Cleveland : World Publishing Co..
- Malamud, Bernard(1971). *The Assistant*. New York: Penguin Books.
- _____ (1966). *The Fixer*. New York: Penguin Books.
- Meeter, Glenn(1968). *Bernard Malamud and Philip Roth*. New Yor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 Mellard, James M.(1970). Four Versions of Pastoral In Leslie A. Field and Joyce W. Field(Eds.), *Bernard Malamud and the Critic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Richman, Sidney(1966). *Bernard Malamud*. Boston: Twayne Publishers, Inc..
- Roheim, Geza(1941). Myth and Folktale *American Imago*, II: p. 272.
- Stern, Daniel(1975, Spring). An Interview with Bernard Malamud *The Paris Review* No. 61: p. 54.

Tanner, Tonny(1969). Bernard Malamud and the New Life *Critical Quarterly*, X: p. 152.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정 영 섭

경성대학교 영어영문학과

608-736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0-1

Tel: (051)620-4220

E-mail: yschung@star.kyungsung.ac.kr

Received in May, 2003

Reviewed in June, 2003

Revised version received in July, 2003